

표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1년째 공사 중단 왜?



광주시 금남로에서 바라본 아시아문화전당 전경. 분수대 뒤편으로 민주평화교류원을 구성하는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 건물들이 보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설계안 보완 않고 수억원 들여 재설계

추진단 “전시 콘텐츠 새로 마련하면서 변경 불가피”

연내 완공 불가능...공사 지연 배상 소송 휘말릴 수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공사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1년여 동안 중단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콘텐츠(전시·공연 프로그램) 때문이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은 “당초 설계안에 전시공간이 2곳이었으나 대폭 확대되는 바람에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고 재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평화교류원 재설계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눈에 띈다.

◇민주평화교류원 재설계 왜? =문화전당은 원래 전당 전체를 통틀어 일괄 설계했다. 그러나 추진단은 지난해 9월 민주평화교류원에 대한 공사를 중단하고 11월 문화전당 5개 원 가운데 민주평화교류원만을 별도로 떼어내 재설계했다.

추진단은 그 배경으로 “애초 문화전당 설계자인 우규승씨가 제시한 설계안은 건물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새로 마련한 콘텐츠 안에 따라 건물을 재설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 우규승씨의 설계안을 백지화하고 별도로 설계용역을 추진한 것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추진단은 수억원 예산을 들인 설계 원안을 보완

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새로 설계하는 방식을 택했다. 예산을 절감하고 민주평화교류원 공사기간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별도로 예산 4억5000만원을 들여 재설계를 발주했다. 설계용역은 공모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됐다.

또 문화전당 건립공사 담당인 전당시설과는 배제되고 업무와 무관한 전당운영 협력과에서 재설계를 추진한 것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당운영협력과는 문화전당의 콘텐츠(전시·공연 프로그램) 구축 등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한 퇴직공직자는 “건축·토목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고유업무를 타 부서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또 민주평화교류원의 최종 설계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에 추가 공사금액 79억여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

추진단이 별도로 민주평화교류원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공기지연에 따른 거액 배상소송에 연거푸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예정대로라면 올 안에 완공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전당 건립을 맡고 있는 대림산업(주), (주)세방테크기계 등은 옛 전남도청 별관 논란으로 2년여 전당 건립공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140여억원의 손해비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민주평화교류원도 같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민주평화교류원은 =국책사업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문화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문화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공사 자질이 벗어난 민주평화교류원은 옛 전남도청, 전남도청민원실, 상무관, 경찰청 본관, 민원실 등 6개 광주민주화운동 유적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전당 건립과정에서 광주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적으로 승화하기 위해 이 공간을 리모델링을 거쳐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었다.

이 공간에서는 문화전당 개관시 5·18 열흘간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담은 ‘열흘간의 나비떼’ 등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평화교류원은 또 문화예술 방면에서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공적개발원조(ODA) 기구 역할도 수행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정현 효과? 새누리·새정치 지역예산 챙기기 경쟁

광주시·전남도와 앞다퉈 예산협의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쟁적으로 광주시, 전남도와 내년도 국고 예산 협의회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당은 다음달 3일 광주시와 내년도 예산정책협의를 갖는다.

중앙당에서는 신기남 참총은 지방정부위원장, 이춘석 예결위 간사, 우윤근 정책위의장,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정국의 해법이 마련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 빠르게 광주시와 내년도 예산정책협의회에 나선 것은 새누리당에 선수를 뺏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이 조만간 새누리당 예결위원들과 함께 광주시, 전남도와 내년도 예산협의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선점하는 것을 노리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이 짙어졌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 민심이 냉랭한데 추석 밤상 정담에서 새누리당이 화제가 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예산 협의를 통해 새정치연합의 진정성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추석 연휴를 지나 광주시, 전남도와 내년도 예산정책협의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추석 이전에 이정현 의원과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등의 문제로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최종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석 연휴 이후에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를 방문, 예산 협의회에 나설 예정”이라며 “내년 지역 현안 사업을 챙기면서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앞다투어 지역 예산 쟁기에 나서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도 한 숨 돌릴 전망이다.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가 파행됨에 따라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당선으로 호남에서도 여야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쟁은 물론 정치에서도 독점 구도보다는 경쟁 구도가 소비자나 유권자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교육청 쌓여 가는 빚

지방채 또 발행...올 채무잔액 4000억 웃돌 듯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의 채무잔액이 지난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내놓은 ‘전국 시도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196억1000만원으로 채무잔액은 903억1000만원에 달했다. 올해 지방채 발행규모도 393억8000만원에 달해 전체 채무잔액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도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

이 806억1000만원으로 채무잔액은 2264억8000만원에 이른다.

올해 지방채 발행규모도 무려 116억여 원이다. 시도교육청의 올해 지방채 발행까지 포함하면 채무잔액 총액은 4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시도교육청의 원금상환은 지난해 아예 없었으며 이차상환만 광주 34억1000만원, 전남 70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는 데 대해 시도교육청은 국고로 지원되는 교육 시설 사업 예산이 줄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the Korea Press Foundation.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newspaper with several figures sitting on it, and a group of children sitting on the floor in the foreground. The text reads: "[오늘의 신문은] 세계 명사들의 특강" (Today's newspaper is a special lecture by world famous figures). Below this, it says "신문을 읽으며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만납니다" (By reading newspapers, you can meet the thoughts of excellent people) and "그들의 생각과 지식이 나의 논리가 됩니다" (Their thoughts and knowledge become my logic). It also states "신문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Newspapers are the largest school in the world). At the bottom right, it says "누구나 배움다 '신문은 가장 큰 학교다'" (Everyone learns, 'Newspapers are the largest school'). The Korea Press Foundation logo and name are also present.